

세계 경제와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회삼원론

New Economy Journal, Volume 1, Issue 2

2019년 5월 9일

나이젤 호프만(Nigel Hoffmann) 박사

슈타이너사상연구소 김훈태 옮김

최근 그리스의 전 재무장관이자 유럽의 경제 및 정치 문제에 대한 저명한 평론가인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의 TED 강연을 보았다. 그는 대체로 독립적인 경제 영역 내에서 기업의 권력이 터무니없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막대한 자본의 건전한 순환을 막음으로써 얻은 이러한 과도한 권력은 정치 영역의 ‘식민화와 식인화’로 이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었다고 말한다. 바루파키스는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공언하며, 잘 알려진 대로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제-정치적 분석이다.

바루파키스가 고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과 자본주의자들(또는 실제로 이 둘을 혼합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문화-정신”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은 경제 영역, 정치-법률 영역, 문화-정신 영역이다. 각각은 다른 영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다른 두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회를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은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¹⁾이고, 그보다 앞선 이로는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루돌프 슈타이너가 있다.

슈타이너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개혁에 관한 상세한 그림을 그렸다. 경제에 대해 다른 두 영역과 분리하여 말하는 것은 그에게 지구 및 태양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식물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슈타이너의 사회적, 경제적 아이디어는 아직 제대로 평가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유용하려면 이러한 전체론적(holistic) 관점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루파키스는 놀라운 제안을 한다. (비록 그는 마르크스주의 좌파가 이미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분화된 경제와 정치가 재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치 영역으로부터 경제 영역의 분화는 수천 년에 걸친 문화적 진화의 결과이다. 유럽 문명에서 경제 영역의 결정적인 해방은 산업혁명 기간 동안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1)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Legitimation Crisis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 토마스 매카시(Thomas McCarthy) 옮김, Beacon Press, 1975, 5-6. 하버마스는 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영역을 경제 체계, 정치-행정 체계, 사회-문화 체계라고 부르며, 각각은 조직적 측면에서 별도의 “통제 센터”를 갖는다.

그리스-로마 시대로 돌아가 결국 경제적 해방으로 이어진 상거래 계약과 상업 협정의 출현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법률적인 사고방식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 민주적 원칙을 지닌 정치-법률 영역이 고대 이집트와 같은 신정 사회의 전체주의적(totalising) 종교 제도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로마 세계는 정교한 정치-법률 구조가 특징이었다. 문화-정신 영역에 관해서는, 서양에서 문화-정신 생활은 비교적 최근 까지 왕정과 교회에 묶여 있었다. 18-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서야 문화 영역이 결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슈타이너와 하버마스를 통해 현대 사회가 삼지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초기 형태에서는 그렇다. 강조해서 말하면, 서구 발전의 추진력은 사회의 삼지적 분할을 향해 있었다. 재통합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먼 슈타이너는, 사회 질서의 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더욱 의식적인 표현이 우리 시대의 사회적 쇄신과 건강한 세계 경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는 분리되고 전능해진 경제 영역이 현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바루파키스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슈타이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제가 정치와 재통합되어야 한다는 바루파키스의 마르크스주의적 제안 대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나는 해결책이 존재하며, 그것은 자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포함한다는 걸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 해결책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면 먼저 사회의 삼지적 전체성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근대의 분업화된 사회는 사회 진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형성 원칙의 표현으로, 식물이 꽃을 피워 자신의 본성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방식과 같다.²⁾ 첫 번째 형성 원칙은 경제 영역과 문화-정신 영역의 분리로 나타나는 양극성이다.

경제 영역이란 무엇인가? 경제를 돈과 연관시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경제 영역은 사실 박애나 연대의 이상을 구현한다. 그것을 공동체의 제스처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이다. 지구상에서 상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데 달려 있다. 수천 명의 개인이 참여하는 정밀 기계가 제조될 때, 특정 개인의 창조적 의도와 열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기업가의 의도와 열망은 예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곧 다루겠다). 경제 영역은 사회 유기체의 한 극을 구성한다.

다른 극, 즉 문화-정신 영역은 개성(individuality)의 원칙을 가장 근본적으로 표현하는 영역으로, “나(자아)”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학교와 대학 같은 문화적 기관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

2) 일부 사회학자들은 사회 진화가 유기적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사실, 둘 다이다. 인간은 성장하고 분화하는 유기체이자 다양한 의도적 상태를 통해 움직이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식의 생성이나 예술 작품의 창조, 모든 정신적 또는 종교적 자아실현 행위 뒤에는 개인의 통찰력과 의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한 개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정신 영역의 핵심 이상은 자유이다. 이는 낭만주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빌헬름 폰 훔볼트가 주장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 근대 자유주의를 구현한 『자유론』에서 언급한 그 자유이다.

자석의 극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성과 개성의 두 극 사이에는 긴장의 장(field)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성의 극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우리를 반사회적 기회주의와 심지어 무정부 상태로 이끈다. 공동체성의 극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전체 인구가 하나의 대가족으로 간주되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일하는 절대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를 이끈다. 극단적인 사회는 자유와 권위, 무정부 상태와 독재 상태 사이의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분업화된 근대 사회에는 이 두 극 사이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두 극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세 번째 영역이 있다. 이것이 소위 정치-법률 또는 정치-권리 영역이다. 평등의 이상은 이 영역 안에서 기능하고 또 형성한다. 민주주의 자체는 평등의 원칙, 즉 “1인 1표제”에 기초한다. 법적으로 확립된 모든 인간 권리를 생각해 보라. 권리는 모든 인간 개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나”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권리에서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 다수와 단일이 수렴하고 상호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올바르게 보자면, 정치-권리 영역은 조정자 역할을 할 뿐이다. 낭만주의 철학자들은 이 조정의 원칙을 접합자(copula), 즉 “묶어주는 것”이라고 부른다.³⁾ 자유, 박애, 평등의 세 가지 이상은 오늘날 의식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사회 질서를 예견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선포되었다.

3) 예를 들어, Mark J. Thomas, *The Mediation of the Copula as a Fundamental Structure in Schelling's Philosophy*(셸링 철학의 기본 구조로서 접합자의 조정), *Schelling-Studien* (2014) 2, 20-39 참조.



사회 유기체

그렇다면 삼지적 사회 유기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자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하는가? 분명해지는 것은 자본(capital)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과정을 간략하게 추적해 보자. 경제는 내가 여기서 “지구(Earth)” 또는 “물질(matter)”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지구를 “토지(land)”라고 하지만 이는 부적절하다. 우선 지구의 물과 가스 형성물은 확실히 경제적 관심과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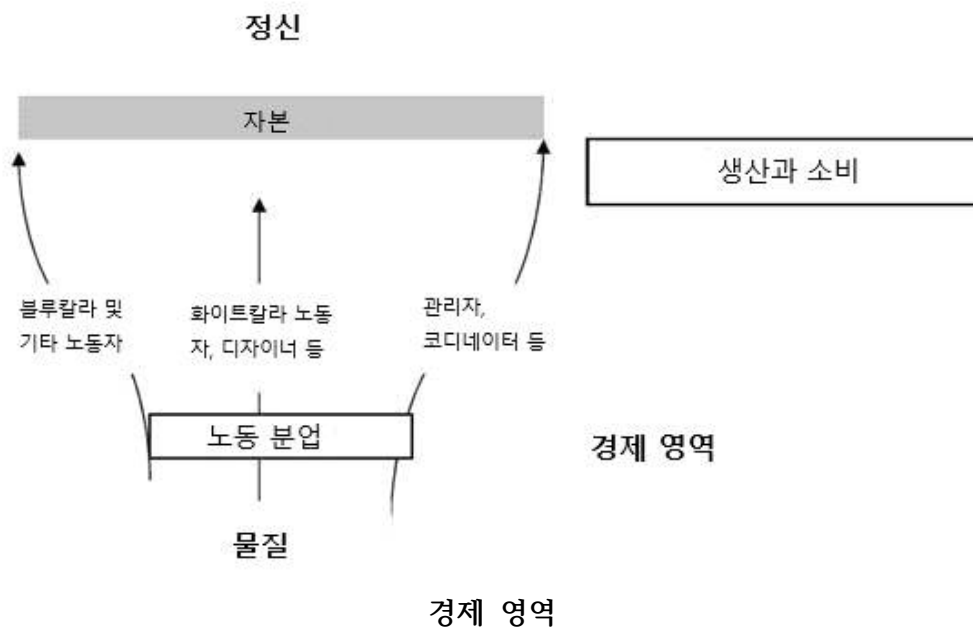
어떤 광물, 액체, 가스, 식물 또는 동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한 사람의 개인 활동에 의해서는 경제 생활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의 분업과 교환의 형태가 있어야 한다. 간단하든 복잡하든 모든 경제적 사건은 자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협력적 활동이다. 인간 본성의 박애적 측면은 우리가 지구와 집단적으로 관계 맺는 방식, 지구가 변형되도록 허용하는 방식, 지구가 어떻게 사회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방식에서 깨어나고 이끌려진다.

사용 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원자재(raw materials)”라고 할 때, 자연이 경제적 범위 안에 들어왔고 인간의 특정한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에서 원자재로서의 자연(예를 들어, 벌목된 목재와 추출된 철광석)으로, 그리고 망치와 같은 상품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마음(또는 여기서 비물질적인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적인 의도로서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을 상품으로 변형시킨다. 목재와 철광석을 볼 때

여전히 상당 부분 자연이 “두드러진다(shines out).” 망치를 볼 때 우리는 자연이 물러나고 두드러지는 것은 “아이디어”, 즉 망치의 기능과 사용 가치에 대한 아이디어임을 인식한다. 식료품과 같은 상품이 소비되고 그 목적이 실현되면 그것의 가치는 감소하며, 그 물질은 빠르게 지구로 돌아간다. 그러나 식료품과 달리 망치는 다른 특정 형태의 활동, 예를 들어 건축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재(capital good)”라고 부른다.

경제적 교환의 순간에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물물교환(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인간이 지구의 순환, 계절의 변화처럼 신정 또는 봉건 사회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일하던 시절 생산과 소비의 본능적 리듬에 속하는 가장 오래된 의식 형태의 한 측면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이 이윤으로 발생하는 교환 형태의 출현은 인간 개성의 진화와 자연의 순환 속에서 본능적인 삶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이 있다. 자본재와 달리 일반적인 자본은 순수한 잠재력이다.

마치 영양가 있는 과일이 오로지 지구와 태양의 상호작용에서 자라는 것처럼, 태양의 에너지가 미네랄 물질을 에너지 물질(당)로 추출하는 것처럼, 자본은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지성에 의한 지구의 변형으로 발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순수한 실재(actuality), 즉 미네랄, 액체 및 기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완성된 작품”인 식물과 동물이 잠재력 상태로 변형된다. 자본은 변형적 경제 과정의 꽃이며, 꽃과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길 기다린다. 어떤 식으로든 자본을 열매 맺는 것은 인간의 창조성이다. 정신은 인간 정신의 실현을 위해 지구를 자본으로 변형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이 지구의 물질(substance)에서 점차 추출되면서 경제 생활을 넘어서 사회 생활의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식물의 성장을 다시 생각해 보라. 씨앗 단계에서 식물은 주로 지구와 그것을 둘러싼 어두운 공간에 속한다. 잎이 돋아나고 퍼지고 나선형으로 휘감기는 생장 단계에서는 주로 물, 공기, 빛의 영역에 속한다. 꽃이 피면 식물은 주로 태양의 빛과 온기에 의존한다. 이것은 꽃의 색과 향기, 화밀의 달콤함, 곤충이나 황금빛 꽃가루가 빛이 가득한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꽃의 컵과 같은 수용 공간 등에서 드러난다. 꽃은 주로 태양의 영역에 속한다.

경제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상품 단계에서는 여전히 주로 지구와 사회 유기체의 경제 영역에 속한다. 자본재로서는 여전히 경제적 산물이지만 문화-정신 영역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기도 한다. 모든 자본재(예를 들어 망치, 페인트브러시 또는 컴퓨터)의 잠재력은 창조적 충동(이 경우 건설, 페인팅 또는 주도적 계획에 대한 의지)에 의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 자본으로서 가장 정제된 형태로는 불확정적 잠재력을 표현한다. 이 상태에서는 주로 권리 영역에 속하며 문화-정신 영역을 지향한다. 이는 자본이 주로 인간의 창조적 정신, 즉 자본의 잠재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개인적 역량 및 창조적 의도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개별 인간은 자본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자본은 공동의 지구, 광물, 식물 및 동물에서 무수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추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은 공동 자산이다. 자본이 경제적 현상이라는 관념이 아무리 깊이 자리 잡았더라도, 자본은 경제 현상이 아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인 화제의 토론과 관련하여, 아직은 미미하지만, 자본이 실제로 인간 권리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본이 전체 공동체의 자산’이라는 말은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자본을 소유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목적은 자본, 즉 자본재(생산 수단), 토지, 금융 자본을 소수의 손에서 떼어내 다수의 손에 맡겨 그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여, 소수나 다수가 소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본은 결코 경제적 현상이 아니다. 자본은 경제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문화-정신 영역에 적합한 권리 영역에 속하는 가장 고차적 형태로 존재한다. 역동적인 사회 전체에 대한 생생한 상상력만이, 자본이 그 자신의 발전을 통해 사회 전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것이다. 자본은 문화-정신 영역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은 조정자, 즉 정치-권리 영역이다. 자본 전체가 사회의 정신-문화 생활에 활용되는 것은 올바르고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사회 생활에서 자본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좁고 제한적인 의미는 제한적이고 병든 사회적 조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공동의 지구에서 추출한 자본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이 권리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리 영역의 임무이다. 모든 인간은 자본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동일한 양의 자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필요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은 인간 정신의 실현을 위해 인간 정신에 의해 형성되며, 따라서 자본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법은 문화-정신 영역에서, 실제로 그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개인이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해] 자본을 사용할 의향이나 능력이 없을 때, 이 사용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특권이나 경제적 힘에 의해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 생활에서 얻은 수련의 힘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후계자가 누구인지 알아냄으로써 양도될 것이다.”⁴⁾

사회 생활의 이러한 측면을 관리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의 자유와 자유로운 개성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은행(진정한 공동체 은행)은 자본 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은행은 경제 생활과 문화-정신 생활을 조정하는 “권리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만이 자본의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니다. 적어도 은행은 자유로운 인간 개인의 필요와 창조적 역량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정신 영역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만 자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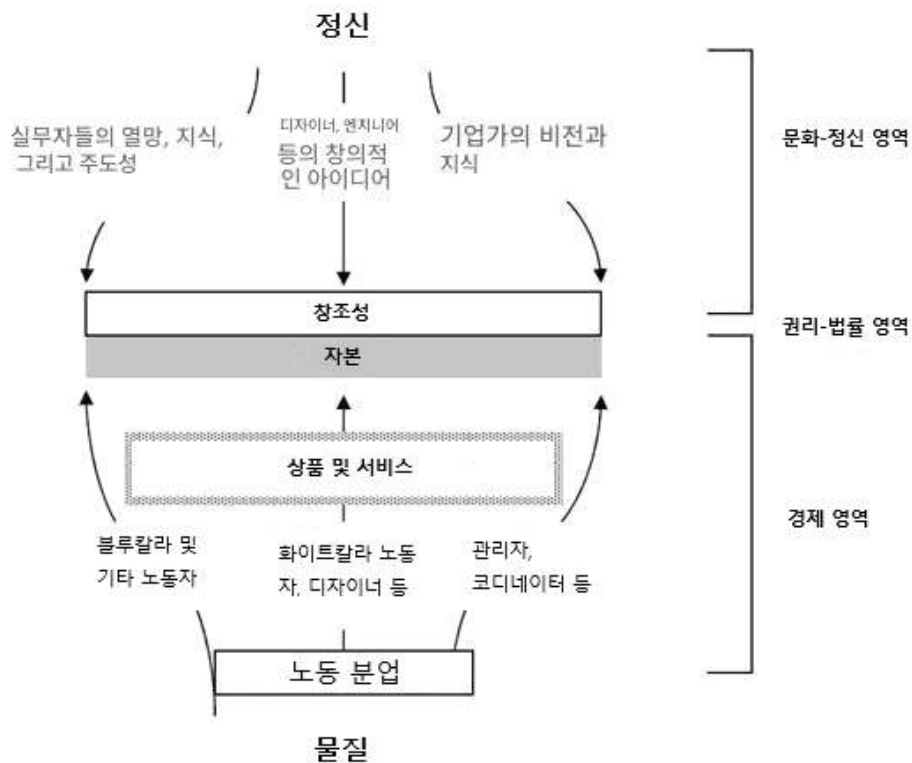
따라서 슈타이너가 제시한 삼지적 사회 질서의 그림에서 경제 생활은 자본을 생성하고 활용하지만 분배하지는 않는다. 다른 두 영역과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간의 긴밀한 연합(association)을 포함하는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슈타이너가 “연합(associative) 경제”⁵⁾라고 부르는 것은 후속 논문에서 다룰 주제이다.

아래 도표에서 우리는 문화-정신 영역에서 자유롭게 탄생한 의도, 아이디어, 비전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본의 순수한 잠재력이 권리 영역에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표의 문제점은 자본이 공간적 의미에서 경제 영역을 피하고, 자본 및 노동

4) Rudolf Steiner, *The Renewal of the Social Organism(Aufsätze über die Dreigliederung des sozialen Organismus)* (Rudolf Steiner Press, 1985), 101.

5) 다음을 참고하라. Rudolf Steiner, *Steinerian Economics*, edited by Gary Lamb and Sarah Hearn (Adonis Press, 2014); Gary Lamb, *Associative Economics* (Waldorf Publications, 2010); Christopher Houghton Budd, *The Metamorphosis of Capitalism: Realising Associative Economics* (Associative Economics Institute, 2003).

과 관련된 권리와 정신적 일들(matters)이 경제 영역 너머의 관료적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그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 유기체라는 살아 있는 실재에서 세 영역은 독립적이지만 상호 침투되어 있다. 모든 직장에는 경제적 맥락과 함께 개인의 권리 및 자유가 행사되는 법률-행정 차원과 문화-정신 차원이 있다. 노동자, 중간 관리자, 상급 관리자 간의 자유롭고 비관료적인 협력과 협상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는 창조적으로 해결된다.



사회 유기체 내의 자본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원칙(자유)이 소위 “자유 기업”과 “자유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영역에 침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왜곡되어 있다. 그 결과 경제 영역의 본질적인 박애적 성격과 주로 문화-정신 영역에 속하는 자유의 이상이 모두 타락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기업가를 자본가, 즉 자본(자본재 또는 생산 수단을 포함하여)의 소유자로 바꾸어 이러한 왜곡을 야기한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의 창조적 의도와 행동은 다른 모든 형태의 생산 및 창조적 비전과 함께 전적으로 문화-정신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기업가의 경제적 사업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입될 것인가도 문화-정신 영역의 결정에 달려 있다.

경제 영역이 정치 영역과 재통합되어야 한다는 바루파키스의 주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을 문화-정신 영역에 속하는 권리 현상으로 이

해하지 못할 때에만 가능하다. 사회를 삼지적 유기체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다른 두 영역과 관련하여 문화-정신 영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진정한 보편적 박애의 이상에 자극을 받은 20세기 초 공산주의 붐기는 사회의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자본주의의 지배자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이 혁명적 의제는 정치 영역의 강제력에 의존했다. 진정한 해방의 힘이 개인 그리고 개인의 개화(unfoldment)를 뒷받침하는 모든 것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다.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요구하는 것은 옳았다. 옳았지만 일방적이 었다. 그들은 경제 생활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경제 생활과 더불어 자유로운 권 리 영역과 자유로운 정신의 수양이 생겨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⁶⁾

슈타이너는 독립적인 문화-정신 생활만이 “경제 생활에 인간의 정신적 충동을 불어넣 어 그것을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⁷⁾ 일방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대표하는 경제적 해방의 힘은 사회 유기체의 의식적인 삼지성을 향 한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20세기 공산주의 혁명의 실패는 사회 유기체를 한층 더 건강하게 형성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들은 사회 생활의 세 영역이 모두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 고, 서로로부터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달성하여, 통합된 전체로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나이젤 호프만 박사

나이젤은 지난 18년 동안 호주와 스위스에서 루돌프 슈타이너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회삼원론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지원하는 “Education for Social Renewal Foundation”의 이사이다. 그는 2007년에 출판된 『Goethe’s Science of Living Form: The Artistic Stages』의 저자이기도 하다.

6) Rudolf Steiner, *The Renewal of the Social Organism*(*Aufsätze über die Dreigliederung des sozialen Organismus*) (Rudolf Steiner Press, 1985), 68.

7) *ibid.*, 68.